

# 성보 지킨 두 거장 빛으로 돌아가다



석정 스님



석정 스님은 입적 두달 전에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직접 불화 시연을 보여 대중들을 감동시켰다.



석정 스님은 평소 편지봉투를 재활용해 제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림은 스님의 이수자인 전연호 일석문도회 회장에 전해준 친필(사진 왼쪽). 스님의 선사화작품 '蘭'(사진 오른쪽)

세상에는 거장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 문화예술 등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 불교사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 어린시절부터 금강산 신도로 불린 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승)은 이 시대 최고의 불화승이다. 범하 스님 역시 한국 최초의 사찰박물관인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열고 성보문화재 수호의 새 역사를 쓴 장본인이다. 특히 두 분이 의기투합해 20년 동안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는 한국불교미술사의 새 장기를 마련한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석정 스님의 제안에 따라 범하 스님이 함께 피와 땀과 불심으로 이뤄낸 결정물들이다. 이 시리즈의 출간은 한국 불화를 집대성하고 세계에 한국 불화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두 거장은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각각 우리결을 떠나셨다. 거장은 갔지만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한국불교미술사에 위대한 역사가 됐다. 이 두 거장이 입적에 든지 49일째가 돌아온다. 석정 스님은 2월 6일 송광사에서, 범하 스님의 49재는 2월 24일 통도사에서 각각 열린다.

## 석정·범하 스님을 추모하며

“석정 스님은 항상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을 수행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늘 중생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셨다. 그래서 입적 후 의학도들을 위해 시신을 기증할 수 있었고 불화를 통해 중생을 제도한 것이다. 입적하실 때까지 당신의 재를 지낼 돈으로 선방 수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스님을 화엄경과 같은 분이라고 말한다”

석정 스님 상좌 수안 스님은 스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늘 자애롭게 후학들을 돌보신 석정 스님의 삶은 말 그대로 화엄과 같았다고 한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화를 보면 무엇이든 척척 그려내던 신동이었다. 이런 스님의 재능은 당시 신문과 잡지에 화제가 될 만큼 유명세를 탔다. 13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인 석두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에서 출가 했고 당대 최고의 불묘인 일석 스님을 만난다. 석두 스님은 수좌의 길을 원했지만 그 뜻을 저버리고 석정 스님은 불묘의 길을 스스로 택한다.

이후 스님은 많은 불사에 참여하며 명성을 떨친다. 특히 경상남북도의 모든 불사를 전담하다시피 할 정도였다. 1964년 석정 스님은 통도사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서화 수련에 들어간다. 이 결과물들은 1969년과 1970년 연이어 불교계 최초로 선사화전을 열게 되면서 불교미술학계는 물론 화단의 주목을 받는다.

스님은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웠다. 석정 스님의 이수제자인 일석문도회 전연호 회장은 “스님은 따뜻한 품과 함께 겸손함도 지닌 참 수행자였다. 늘상 편지봉투를 재활용해 메모지를 만들어놓고선 늘 불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고 스님을 회상한다.

불화가이자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손연철 교수 역시 스님과의 만남은 운명

적이었다고 말한다. 손 교수는 “대학 때부터 스님을 찾아다녔다. 당시 다른 불묘 스승들은 무조건 수천장씩 그림을 그리라고만 했지, 어떻게 불화를 그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석정 스님은 채색과 필법 등에 대해 무척이나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불화공부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또한 그림 그리다가 몰라서 다급할 때 전화로 질문해도 늘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손 교수는 “특히 지난해에는 인물화를 연구하라는 지점을 내려 주시며 사찰에 있는 영정 사진들을 비롯한 초상화들을 모아 박스에 포장해 보내주실 정도로 애절한 스승이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 성보 수호 발원한 석정 스님 범하 스님에게 불화조사 제안 <한국의 불화> 40권 완간

이후 석정 스님은 1989년 중창 중인 순천 송광사 대웅전 후불탱 조성을 위해 전국의 불화를 돌아보면서 불화의 허술한 보존과 관리 실태를 목격한다. 그래서 옛 불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해 놓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여겨,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세우고 내부 정비 중이던 범하 스님을 부른다.

당시 석정 스님은 범하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평생 열심히 불화만을 그려도 옛 스승들이 남긴 우수한 그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래서 옛 불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 기록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역량을 세워 조사해보자”고 범하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석정 스님의 역량을 받던 범하 스님은 1989년 12월 18일 태허스님·동욱스님·장충식 교수, 그리고 당시 통도

사성보박물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불화조사단’을 구성하고 성보문화재 보존연구원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1990년 2월, 첫 조사 대상으로 직지사 본말사 60여개 사찰을 선정하고 불화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석정 스님은 선화전과 책 판매 수익금 등으로 이들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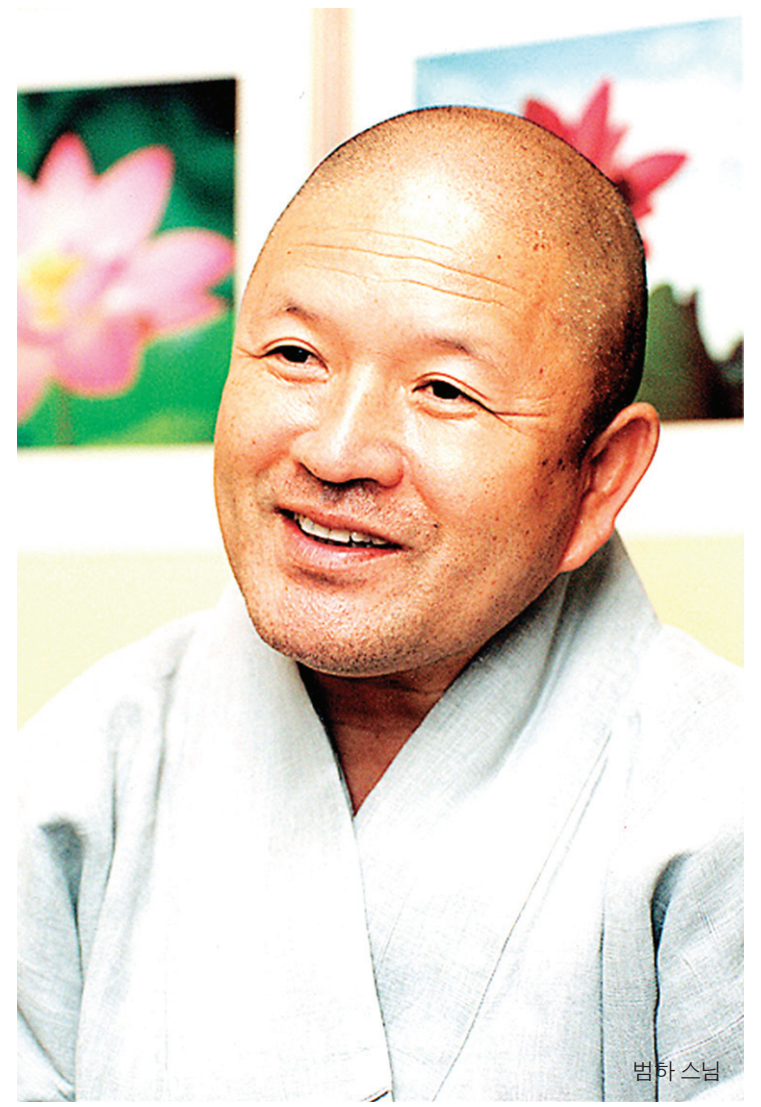
범하 스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국의 불화조사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서술한 바 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화를 봉안처에서 모셔내야 하는데, 예배대상인 불화를 떼어내는데 대한 사찰 측의 이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지금은 웬만한 사찰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지만 그때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산길을 무거운 활영장비를 메고 가야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면 사찰 측에서 반대하기 일쑤여서 힘들게 올라간 우리들의 맥을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범하 스님은 각고의 노력 끝에 2007년 <한국의 불화 시리즈> 40권을 완간하게 된다.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구미태 박사는 “순수한 민간연구원의 힘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조사하는 것은 험난한 여정이였다. 하지만 한국성보문화회와 함께 보존하려는 범하 스님의 열의 앞에 어떤 제약도 문제가 되지 못했다”면서 “20년의 긴 세월동안 3천여 점의 불화를 집대성한 결실은 범하 스님의 추진력과 석정 스님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범하 스님은 1987년 통도사성보박물관 초대관장부터 오늘의 성보박물관 성공모험을 장출한 분이다.”며 “범하 스님의 성보문화재 사랑에 대한 열의에 감동해 2001년에는 ‘자랑스런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적극 추천한 바 있다”고 범하 스님과의 인연을 밝혔다.

비록 몸을 바꾸었지만 이 두 스님이 남긴 불화 사랑에 대한 열정만큼은 길이길이 귀감이 될 것이다.



범하 스님



범하 스님은 1989년 불화조사단을 구성해 전국 곳곳의 사찰 불화를 조사했다. 사진은 1996년 오대산 적멸보궁 조사 정면.



범하 스님이 이끈 불교성보문화재연구원은 2007년 한국의불화 시리즈 40권을 완간했다.

**조계종 전장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와, 때로는 흔적 없는 공기와도 같은 향기를 일별하기를...

**신간! 선문명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1권 출간!  
운거, 소산, 조산, 용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른 불자, 누구나 궁금한 108진참회문**  
108진참회문 The 108 Recitations of Repentance 108眞忏悔文

(전락)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기피가 불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요?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현대인의 궁극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참회문**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